

[이글루스](#) | [로그인](#)

## 초록불의 잡학다식

[orumi.egloos.com](http://orumi.egloos.com)[★☆☆방명록&운영방침★☆☆](#) [★☆☆★포스팅의 원칙★☆☆](#) [★☆☆나의 소설 리스트★☆☆](#)[이글루스 로그인](#)[포스트 영역 바로가기](#)

### 우주전쟁 - 화성인 버전 \*크리에이티브\*

- by 초록불
- 2008/09/06 23:02
- [orumi.egloos.com/3894220](http://orumi.egloos.com/3894220)
- 댓글수 : 22

#### 1. 착륙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엄청난 진동이 우주선을 흔들었다. 장장 6년에 걸친 대항해가 드디어 끝났다. 나는 화성 지구 정복단 제1함대 부함장이다.

"수색부는 지구 대기의 분석을 시작한다!"

함장의 명령에 따라 선단부의 해치가 개방되었다. 아주 살짝. 원통형의 입구가 회전하면서 지구의 대기가 들어올 수 있을만큼의 공간이 열렸고, 지구의 공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밀려들어왔다.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지구의 대기는 우리가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점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사는 불여튼튼. 우리는 모두 피부 밑에 멸균세트를 끼워 넣었다. 이로써 그 어떤 지구의 세균이나 박테리아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된다.

"보급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나?"

불행히도 그랬다. 식량을 싣고 올 보급대는 만약의 사태를 위해 가장 마지막으로, 즉 열번째로 발사되었다. 아직 도착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6년이나 냉동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신선한 음식이 정말 그리웠다. 일단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고체혈액을 제공받았는데, 군대 짬밥이 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화성인이 먹을 게 못 되는 물건이었다.

"외계 생명체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색부의 대원 하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부 상황을 알려왔다. 너풀거리는 피부(나중에야 그것이 "옷"이라는 인조피부라는 것을 알았다)를 가진 지구인들이 두 개밖에 없는 촉수에 뭔가 무기로 보이는 길다란 것들을 장착한 채 불안정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자연의 실패작이다. 지성이 있는 생명체라면 안정적으로 사고하기 위해 당연히 세 개의 다리를 가져야 하는 법이거늘 저들은 다리가 두 개밖에 없다. 대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지구인의 불안정한 특성은 향후 정복작업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효했다. 저들은 그저 조금만 흔들어도 바로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다 진화가 덜 된 탓이다.

저들이 접근하게 내버려 둘 생각은 없었다. 다행히 수색부는 이미 해치를 개방하고 살인광선 기계를 배치해놓은 상태였다. 실수로 한 수색부원이 우주선 밑으로 떨어졌지만 피부 밑에 충격방지세트를 꽂아놓은 상태여서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바로 살인광선을 내뿜어 접근하는 지구인들을 전멸시켰다. 혹시 살인광선이 먹히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구경을 나왔던 지구인들이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했지만, 역시 불안정한 다리 때문에 제대로 달아나지 못하고 바로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느라 난리였다.

#### 2. 화성

화성은 멸망해 가고 있었다. 오래도록 지속된 가뭄으로 물이 거의 남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먹거리도 떨어진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화성에 남은 자원을 모두 긁어모아 지구정복대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아무 희망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만든 그 모든 문명의 기록들도 모래로 변해 버리고 말 것이다. 화성에 남아 우리의 승리를 기원하며 죽어갈 동포들을 생각해도 우리의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구에 지적생명체가 있음을 알았을 때, 큰 논란이 있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다른 지적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정신병자같은 주장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라. 우리별에 어느 외계인이 떴거지로 와서, "우리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왔는데, 땅 좀 내주세요." 하면 "네, 여기가 안락합니다. 저희별 사람들은 몽땅 비켜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겠는가? 따라서 전쟁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기려면 선제공격이 중요하다.

### 3. 응징

지구인들도 미개하긴 하지만 지능이 있으므로 반격해올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열두개의 촉수를 흔들며 우리는 조립기계 조립에 나섰다. 공병부가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채근해야만 했다. 조립기계만 만들면 이것들이 전투기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다. 다행히 우리가 미개한 지구인들보다 빨랐다. 그들은 이미 해치가 열린 우리에게 오지 않고 제2함대 쪽으로 몰려갔다. 원시적인 탄환을 쓰는 무기를 끌고. 그러나 우리의 용맹한 전투부에서는 전투기계를 끌고가 그들을 섬멸했다.

지구인들에게 저항이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을 빨리 알려줘야 했다. 우리는 제2함대와 힘을 합해 지구인의 부대와 맞섰다. 그들은 도무지 지휘부라는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얼마나 무계획적이었는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우리들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상대해 주어야 할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런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우리 함대의 전투기계 3호가 폭파되는, 있을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불쌍한 XXX중위.(이름은 번역 불가능) 중위는 임신 중이었는데도 용감히 선두에서 싸우다가 유탄에 맞아 중대원들과 함께 산화하고 말았다. 이 버러지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지역의 완전한 섬멸을 명했다. 지구인들이 리더헤드라 부르던 이 지역은 남김없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지구인의 반격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

### 4. 진격

우리가 이 지역에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때문에 지구 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선택된 곳이 바로 이 곳이었다. 이곳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에서 가까운 평탄지대로 착륙에 유리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지구인들이 런던이라 부르는 곳이었다.

후속 함대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강대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이 부족했다. 그때 수색부에서 지구인과 지구생물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올렸다. 정말 희소식이었다. 모두 신선한 식량이 그리웠기 때문에 이 상태가 더 지속되면 반란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 식품을 그냥 섭취하는 것은 아무래도 꺼림칙했다. 수색부는 소독약을 뿌리자고 했다.

우리는 소독약을 뿌리며 런던을 향해 진군했다. 확실히 성능이 우수해서 소독약에 닿은 지구 생물들은 그대로 쓰러져버렸다.

### 5. 반격

제4함대가 도착했고 우리는 순조롭게 런던을 향해 진군했다. 그러나 지구인들은 아직도 발악을 하고 있었다. 제2함대 제3중대가 지구인의 더러운 매복에 걸려 전투기계에 손상을 입고 말았다. 우리는 그들의 전의를 완전히 박멸시켜야 했다. 소독약의 무차별 살포를 지시했고, 과연 그 지시는 효과가 있었다. 지구인은 이제 우리를 보면 달아나기 바빴다.

제5, 6함대가 도착했을 때 런던은 이미 우리 수중에 있었다. 이곳에는 물이 많았다. 더구나 깊이까지 했다. 전투기계가 물 속에 들어가자 저항을 받아 속도도 느려졌고 전투기계가 갖는 높이의 이점도 사

라졌다. 동일한 높이에서 포격전이 벌어지자 지구인들도 제법 전투를 했다. 우리측 전투기계가 두 대나 파손되고 말았다. 우리는 비행기계를 동원해 지구인의 병기를 무력화시켰다.

이것이 지구인 최후의 저항이었다.

## 6. 식량

지구인들은 피부세트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다. 선사시대 역사 공부시간에서나 접하던 인조피부를 걸친 채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신체의 열량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내장기관을 가지고 있었다. 대체 인체의 대부분이 소화기관이라니, 그 원시적인 육체가 상상이나 되는가? 그럼에도 이들이 지성을 약간이나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적과도 같았다. 아무튼 이들은 열량이 지극히 적기는 했지만 혈액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허기를 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제 보급부대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우리는 지구인이 아니라 굶주림으로 전멸하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

## 7. 종말

빌어먹을 10함대가 우리가 다 굶어죽기 직전에 도착했다. 함대사령관은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급히 전령을 보내 자신들의 도착을 통보했다. 사기가 급충천했다. 모두 이제야 제대로된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일초의 지체도 없이 식량이 분배되었다. 아, 그 황홀한 맛이란! 둘이 먹다가 둘이 다 죽어도 모를 맛이였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기력으로 10함대의 식량담당부사관을 총살해버렸다. 식량창고의 냉동온도를 잘못 맞춰놓다니! 6년간 부패한 식량이 지급되었던 것이다! 혈관으로 영양분을 직접 공급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작용은 가히 치명적, 그 이상이었다. 6년간이나 이동한 전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급히 식량 배급을 원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찌질한 변명은 정말 최악이었다. 고문관 하나가 전부대를 멸망시키다니...

지나가던 바보 지구인 하나가, "박테리아가 화성인을 전멸시켰어!"라고 외쳤다. 우릴 감히 자기들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냐! 하지만 그 바보를 죽일 기운도 남지 않았다. 어쩌면 먹은 것을 처리하는 길고 긴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는 지구인들이야말로 우주를 개척하기에 적절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우리처럼 독성에 금방 쓰러지지는 않을 테니까... (꺽!)

태그 : [패러디](#)

## 포스트 메타 정보

### 퍼블리싱 및 추천

- **내보내기**
  - 테마 : [창작](#) 2008/09/06 23:02
  - 태그 : [패러디](#)

### 같은 카테고리의 글

트랙백(0) 댓글(22)

## 트랙백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TrackbackURL : <http://orumi.egloos.com/tb/3894220> [[도움말](#)]

## 댓글



- [르-미르](#) 2008/09/06 23:09 # [답글](#)

그게 소독약이었군요 ! ()

그런데 운명을 개척하려는 웅대한 시도가 결국 자연 앞에서 굴복하는, 화성인의 비장한 최후가 저렇게 되다니 엉엉 >>-<



- [다크엘](#) 2008/09/06 23:10 # [답글](#)

화성인의 전멸은 고문관 때문이었군요.

역시 여러가지 의미로 고문관은 공공의 적입니다..(어?)



- [관죽관돌이](#) 2008/09/06 23:13 # [답글](#)

아아 고문관은 우주 어디에서나 문제로군요...



- [슈타인호프](#) 2008/09/06 23:16 # [답글](#)

아니 저런 지구수호유공자 화성인 같으니!!



- [akpi](#) 2008/09/06 23:27 # [답글](#)

역시 보급계가 고문관이면 ... 어딜가나 말썽이 ..



- [死海文晝](#) 2008/09/07 00:05 # [답글](#)

고문관의 위력이 보통이 아니군요.



- [耿君](#) 2008/09/07 00:06 # [답글](#)

그...그런 내막이!!



- [꽃곰돌](#) 2008/09/07 00:08 # [답글](#)

고문관은 범우주적 문제였군요;



- [동피이](#) 2008/09/07 00:28 # [답글](#)

저 고문관에게 훈장을!



- [엘레시엘](#) 2008/09/07 02:35 # [답글](#)

지구연합 독립 유공훈장을 줘야 할만한 고문관이군요.  
무다구치와 함께 독립 기념관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스/



- [초록불](#) 2008/09/07 07:04 #

그, 그렇다면... "식량의 부족이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화성인 고문관...^^



- [풍신](#) 2008/09/07 09:14 # [답글](#)

상당히 심오한 비전을 가지셨군요.



- [초록불](#) 2008/09/07 09:32 #

무슨 뜻인지 잘...^^



- [R자자](#) 2008/09/07 09:50 # [답글](#)

시스템이 복잡하고 섬세할수록 작은 트러블로 인하여 붕괴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에피소드군요^^;;

단순하고 간략한 시스템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뜻으로 보아도 될듯^^?;;;



- [catnip](#) 2008/09/07 09:59 # [답글](#)

우주전쟁을 안봤는데 이런 내용이었군요!!!  
나중에 기회만들어서 꼭 한번 봐야겠습니다. 주인공인듯한 화성인 부함장의 최후를 지켜보고 싶네요.



- [초록불](#) 2008/09/07 10:05 #

원전에는 화성인 부함장 따위는 전혀 안 나옵니다...^^



- [dunkbear](#) 2008/09/07 10:30 # [답글](#)

당장 이 명문은 군장교들 교육용으로 배포해야 할 것 입니다.

1. 보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총살당하고 싶지 않으면 식량 제대로 보관하라.

3. 고문관은 인류의 적이다.

이런 유익한 교훈을 알려주는 귀중한 글이기 때문이죠. ^^/



- [ulpa](#) 2008/09/07 14:36 # [답글](#)

원균도 해내지 못한 일을 단숨에 해내다니. 화성10함대 식량담당 부사관은 전우주 고문관의 지존입니다.



- [이준님](#) 2008/09/07 16:09 # [답글](#)

글구보면 아예 시각을 외계인-지구인의 이원화로 그린 모 대체역사물은 진짜 명작이군요



- [행인1](#) 2008/09/07 16:54 # [답글](#)

화학전을 한게 아니라 소독약을 부린 것이었군요....



- [잠본이](#) 2008/09/07 18:24 # [답글](#)

"이 더러운 지구인놈들!" OTL



- [스마슈](#) 2008/09/07 23:41 # [답글](#)

ㅎㅎㅎ 고마워요, 화성군 고문관~(허구연 필로)  
잘 읽었습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글 : 선생님의 선물](#)

[이전글 : 가족이야기 180 - 닭살 2제](#)

## 프로필



orumi.egloos.com

문학이 대중에서 멀어질 때 문학은 특권 계급의 현상이 된다. - 안토니오 그람시by 초록불



697

HANRSS

[유사역사학 비판.](#)  
[이문영의 삼국연의.](#)  
[아이, 뱀파이어.](#)  
[황룡사 살인사건.](#)  
[오리지널맨.](#)  
 ↓현재 접속자↓

29



[2004년 8월 8일 개설](#)

주인장이 지은 책



[역사 속으로 송송 1 : 고조선 편](#)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10부작 파타티 도컷



[색깔을 훔치는 마녀](#)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  
상의 그림을 통해 색의  
며치기 색이 흥취 의기



[속세가](#)  
2001년 부여 능산리 옛  
절터에서 발견된 백제  
이 시 '스 비기'에 자기



[자명고](#)  
문명의 역사 판타지 로  
맨스 소설. 고구려 왕자  
츠크도우 가 시구세 시 여

최근 트랙백

- [사실 아래와 같은 오류는 WROTH BOY 11/17](#)
- [노래의 날개 위에 Pomp On Math & Puzzle 11/13](#)
- [\[잡담\] 정통성 드립.. 우파라 주장하고 싶다면 제발.. High enough! 11/09](#)

## 2002년 노벨 상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Google 공익광고

### 카테고리

- [\\*..역.....사..\\*](#)(713)
- [\\*..게.....임..\\*](#)(93)
- [\\*..시.....사..\\*](#)(287)
- [\\*..문.....화..\\*](#)(382)
- [\\*크리에이티브\\*](#)(231)
- [\\*.....PDA.....\\*](#)(24)
- [\\*..자.....서..\\*](#)(487)
- [\\*..잡.....학..\\*](#)(282)
- [\\*..만.....상..\\*](#)(1127)
- [\\*.....비공개....\\*](#)(251)





## 태그

[단군기 정은켄](#) [미수기연](#) [이오공감](#) [시사](#) [김영하](#) [민담](#) [결제창](#) [기수사문록](#) [민족주의](#) [동국통감](#) [응제시주](#)  
[언론](#) [일제강점기](#) [단군고기](#) [고기](#) [장르소설](#) [문제해결](#) [3.1운동](#) [조선왕조실록](#) [권근](#) [감](#) [교과서](#) [우석훈](#) [영](#)  
[화](#) [이글루스](#) [단군본기](#) [역사](#) [흑부리영감](#) [베스트셀러](#)  
[태그](#) [전체보기](#)

초록불 추천도서



[규장각 각신들의 나날](#)

1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쓰 바라하 구매사 사서



[사람들은 왜 무엇이든 믿고 싶어할까?](#)

첨단 뇌과학과 진화생  
물학 조그하 피시는 비



[본격 제2차 세계대전 만화 1권](#)

'본격'의 칭호에 어울리  
니 자프으르 기드나 여



[기란 1](#)

최근 덧글

- [원류가 있었다 라는것정도까지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애시당초..by Niveus 00:48](#)
- [오오 좋은 글입니다. by 다복술군 00:45](#)
- [독감이... 참 정겨운 이름이군요 OTLby 잠본이 00:30](#)
- [으음, 제 생각과는 달리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군요. 저는 이제는 ..by 초록불 00:25](#)
- [혹부리 영감도 일본의 영향이 있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by 야스페르츠 00:19](#)
- [도깨비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언제 한 번 다..by 초록불 00:15](#)
- [교과서 삽화를 보니 예전 일본 만화가 한국에서 번역본이 나올 때 유..by 네비아찌 00:11](#)
- [우리나라의 도깨비라고 했지만, 몇몇 동화책에는 일본의 도깨비 ..by Charlie 00:03](#)

-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설화가 있는 건 들었지만, 흑..](#) by 을파소 11/21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 by 초록불 11/21

블로그내 검색 영역

검색   
 맞춤검색



### 이전글 목록

- [2010년 07월](#) (1)
- [2009년 11월](#) (19)
- [2009년 10월](#) (30)
- [2009년 09월](#) (29)
- [2009년 08월](#) (32)

[more...](#)

### RSS



[orumi.egloos.com](http://orumi.egloos.com) is powered by [Egloos](#). Subscribe to [RSS](#). Skin design by [egloos](#).